



정교회주보

제2481호

2024.07.14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메테오라의 수도원 탐방 6> 해발 535m 높이의 거대한 바위 위에는 성 삼위일체 수도원(사진)이 자리 잡고 있다. 11세기부터 수도자들이 정착하였고 수도원 건립은 1438년부터 도미티오스 수도자에 의해 시작되었다. 중앙 성당은 두 개의 기둥이 돔을 지지하는 십자형으로 1475년에 지어졌으며, 메테오라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수도원으로 알려졌다.



제4차 세계 공의회 참석
교부들 주일
성 니코디모스 아토스 성산 수사
(제2조 • 조과 복음 3)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2조 부활 찬양송 81
 - 성 교부들 찬양송 8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디도 3,8~15 (봉)539
 - 복음경 : 마태오 5,14~19 163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예 수님은 어린이들을 자기에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르코 10,14) 그분은 어린이 하나를 가까이 오게 하시어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마르코 10,15)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린이답지 못한 모든 인간적인 특질들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른의 잘못을 벗어던져야 하고 어린이들의 긍정적인 특질들을 수용해야 합니다.

'예수' 중에서 [정교회출판사]

사도들을 본받아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의 나타나심을 보입니다.

첫 번째 출현하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축복과 은총을 주셨고, 두 번째로 출현하셨을 때는 주님인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토마를 불러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으며, 보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 슬픔에 젖어있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방황하며 갈등하고 있던 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로 확인되자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평화를 되찾게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다음과 같은 축복과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진리를 선포하여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터이니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여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혀 죄들을 회개시키고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느님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불가능하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

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대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과 믿음의 용기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와 고백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또한 “네가 무엇이

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라고 마태오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와 고백성사를 제정해 주시고 그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신비의 성사를 거행하는 권한을 주교들에게 전해 주었으며, 주교들은 사제들에게 주어 교회에서 계속하여 거행토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전승의 뿌리를 성서에서 확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권한과 사명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계속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기쁨에 넘쳐 하늘 왕국의 희망 속에 성령의 은총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듯이,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 그와 같이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정교회의 바른 믿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요셉 롤리디스(핀란드 건축가)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역임



부활절이 지나고 며칠 뒤, 나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며 소통하는 인터넷 공간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저런 정보를 살피다가 한 핀란드 여성이 쓴 짧은 글을 보고 이끌리게 되었는데, 그녀는 내가 다니는 성당의 예배에서 여러 번 보았던 사람이었다. 글은 단지 두 단어로 되어 있었으며, 감탄부호가 붙어있었다. 그것은 “마침내, 정교다!”였다. 그저 두 단어로 되어 있는 이 구절이 나를 뒤흔들었다. ‘마침내’라는 단어는 아주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갈망하다가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졌을 때 쓰는 말이지 않은가.

나는 그녀가 이른바 ‘첫 부활’이라고 하는 성대 토요일 아침에 다른 세례 예비자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고대의 교회는 일년 동안 교리를 배우며 준비해온 세례 예비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 성대 토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있었다. 이 예배는 ‘세례를 베푸는’ 성찬예배였다.

이런 이유로 그날은 성찬예배에서 삼성송(거룩하신 하느님이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이

여, 거룩하고 영원하신 이여, 불쌍히 여기소서)을 부르는 대신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도다’라는 성가를 부른다. 신학자 알렉산더 슈메만 신부(1921-1983)는 세례성사에 관한 자신의 책 ‘물과 성령으로 - 세례에 관한 전례적 연구’에서 고대의 교회에서 행해졌던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정교인이 되고자 수년 동안 품어온 이 여성의 갈망이 드디어 실현된 것이다. 그녀가 세례를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모른다. 아마도 종교에 무관심한 무신론자이거나 개신교인 또는 그 밖의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으리라. 그리고 사람의 인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까닭에 미루어 짐작해보면, 보수적이거나 종교적인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관리자나 행정가 같은 이력을 지닌 현대적이고 활동적인 여성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

주간 예배 안내

* 7월 17일(수)
성 마리아 대순교자

* 7월 20일(토)
엘리아 예언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알림

■ 대교구 여름 수련회 공고

올해 대교구 여름 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수련회는 예배와 기도, 공동생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각 성당 사무실에서 오는 17일까지 받습니다.

장소 :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일정 : 7/26(금)-28(일) 신데즈모스, 예비신자 (참가비 6만원)

7/29(월)-8/1(목): 중고등학생 (참가비 9만원)

8/1(목)-6(화): 초등학생 (참가비 15만원)

■ 서울 성당 유아 세례성사

지난 6일(토), 로만이라는 세례명으로 남아가 로만 대신부의 집전으로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리며, 주님의 축복으로 건강하게 자라길 기원합니다.

■ 전주 성당 세례성사

지난 6일(토), 토마스 박지영 예비신자의 세례와 견진성사가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의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여 정교인이 된 것을 축하하며, 주님의 은총과 자비로 믿음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영성의 샘터

거룩한 식탁

필루시오스의 사제 이사야 사부는 식사할 때마다 대화하는 형제 수도자들을 꾸짖었다.

“식탁에서는 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도자의 식탁은 두 번째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느 가난한 사람이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는데, 그의 기도가 불기둥처럼 하늘에 닿아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